

2021년 1월 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팀장 최선두(044-201-7491), 사무관 황세연(7502) / 제공일 : 1월 1일(9매)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과장 이제용(044-201-2531), 사무관 이용진(2537)

강원도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

◇ 발생지역 주변 집중수색, 차단 울타리 설치, 포획도구 설치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
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.
-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, 이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군은 11개로 늘었다.
- 환경부는 발생지점이 제천시, 평창군, 치악산국립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.
- 우선,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(약 16km)를 신속히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막고, 영월군, 야생생물관리협회, 국립공원공단 등의 수색 인력 120명과 수색견 5개 팀을 발생지점 주변에 투입하여 조기에 폐사체를 제거한다.
- 또한, 발생지점 반경 약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, 원주시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,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 덫 등 포획도구를 설치하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다.

- 아울러,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평창군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,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.
- 환경부는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발생 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.
 - 우선,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,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.
 - 또한,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역에도 수색인원을 운영하고,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한다.
 - 아울러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(GPS)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.
-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,
 -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.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(10km내) 양돈농장(5호)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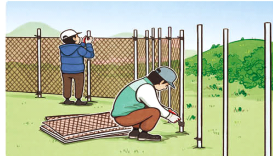
* 영월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5호(영월1·제천4) 위치

-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*에 '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,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.
 - 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, 주변 도로 등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.
 - 12개 시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**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.
- * (총178호) 강원 강릉(22), 횡성(19), 평창(7), 원주(34), 태백(3), 삼척(6), 영월(6), 정선(1) / 충북 단양(5), 제천(17) / 경북 영주(36), 봉화(22)
- **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, SNS, 문자발송(KAHIS) 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
 - 또한,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, 강원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('21.1월~).
 - 멧돼지 방역대(검출지점 반경 10km내) 농장(5호)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,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.
 -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전수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.
- 아울러,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, 입산 금지, 모돈사 출입 최소화, 소독,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참고1

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

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대응



1. 울타리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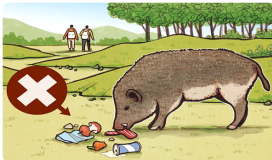


2. 폐사체 수색



3. 멧돼지 포획

주민행동요령



야외 활동 후 남은
음식물을 버리거나
야생동물에 먹이를
주지 마세요



입산 후에는
신발, 옷 등을
세탁하여 주세요



질병의심 개체 및
폐사체는 **발견 즉시**
신고해 주세요



멧돼지 발견 신고 후
최소 5일간은
양돈농가, 도축장 가공장 등
방문을 자제해 주세요



멧돼지 폐사체,
질병의심 개체는
직접 접촉하지 마세요



울타리 통과 후에는
꼭 문을 잠가 주세요



멧돼지 사체 발견 즉시
지자체 환경과에 연락하여
담당자 안내에 따라
소독 조치하여 주세요
* 담당자 도착 시까지 현장에 대기



바이러스 발견구역은
출입을 자제해 주세요

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



아프리카돼지열병 Q&A

아프리카돼지열병(African Swine Fever, ASF)은 어떤 질병인가요?



동물 중 돼지·멧돼지만 감염



치사율 100%



돼지 간 바이러스 전파가능

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생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?

11일



분변

105일



돼지혈액

180~300일



육포

1,000일



냉동돼지고기

주요 임상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.



한데 겹쳐 있음



귀에 점 모양 출혈



피부 출혈 및 괴사



코와 입 주위 출혈 및 점액성 거품



사지말단부 및 복부 출혈

발견시 신고 요령

이럴 때 신고하세요

- 멧돼지가 살아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
혹은 죽은 개체를 발견한 경우
- ※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 전형적인 증상 :
코와 입 주위,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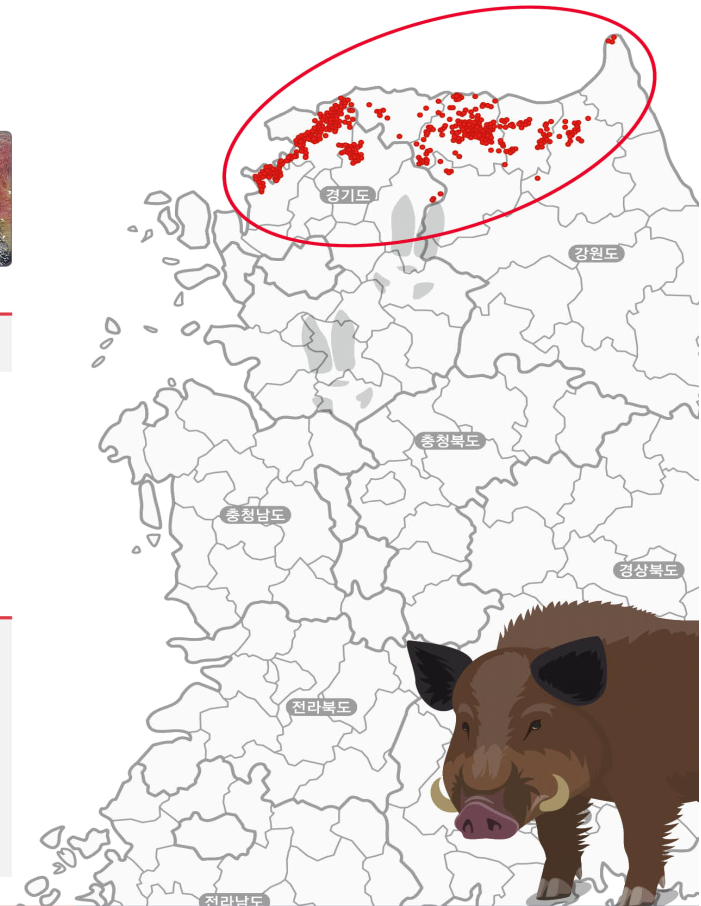
이렇게 신고하세요

- “00월 00일 00시 경에,
00(시군구) 00(읍면동) 00번지 000부근에서
죽은(질병이 의심되는)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.
신고자는 000이며 연락처는 000입니다”
- ※ 발견일자, 발견장소, 주요 내용 및 신고자 연락처 등
6하 원칙에 따른 정보 제공.

- 정부민원콜센터 ☎ 110
- 시·군·구 환경담당부서
-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
☎ 032-560-7141~7151
- 신고 사진이나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✉ kyk5388@naver.com

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

- 경기, 강원 북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
(파주, 연천, 포천, 가평, 철원, 화천, 양구, 춘천, 인제, 고성)



조류인플루엔자(AI)·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예방 「농장 4단계 소독」 요령

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



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·주변 50cm 이상
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

- 1주일 간격 반복 도포, 비·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
-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

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·소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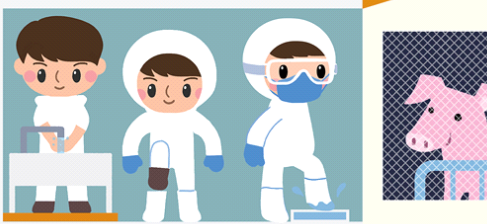


※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

- 농장 내부, 사료빈·퇴비사·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·소독
-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(사료·폐사축·왕겨 등) 방치 금지

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·손 소독

세척솔·물(세척조)를 이용하여
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



※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~3일 간격 교체

-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
- 축사 출입시 손 소독, 방역복·위생장갑·전용장화 착용

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

축사 청소·소독 순서

- ① 청소·세척 천장→벽→바닥 순
- ② 건조
- ③ 소독약 살포
천장→벽→바닥 순



- 사람·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
-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

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
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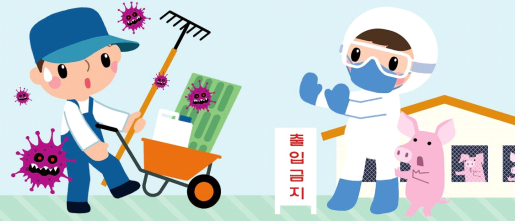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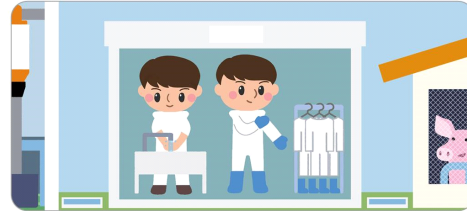
ASF 예방을 위한 모돈사 관리



모돈사 관리



1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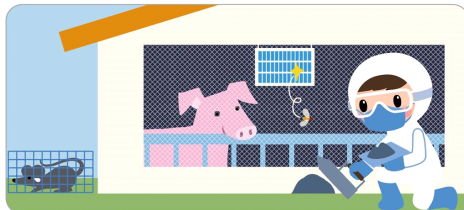
2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, 전용장화 갈아신기, 방역복 갈아입기,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


3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.



4 모돈, 후보돈 등에 고열,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,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.



5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, 구서·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,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.



6 돈사내 사용물품은 돈사내 보관·소독하고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(불가피한 경우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)



7 위험시기(지역)에 양돈농장은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, 불가피한 경우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, 작업인력,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철저히 세척·소독 한다.



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
1588-9060, 1588-4060



농림축산식품부

위험!!

ASF 바이러스가 축사앞까지 와 있습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ASF 예방을 위한 농장 주변 방역 관리



농장 주변 방역 관리



1 ASF 발생지역내 양돈농장은 영농활동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 영농(양돈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탁)으로 전환한다.



2 농장관계자는 외부출타리 밖 논밭, 야산은 출입하지 않는다.



3 트랙터 등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.



4 농장 외부출타리 둘레에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, 생석회를 주기적으로 도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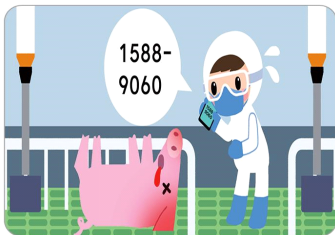


5 농장 주변에 남은음식물, 폐사체 등 멧돼지 유인할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지 않는다.



6 생석회가 도포되지 않은 농장 주변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소독한다.

폐사체·위축돈 관리



1 농장에서 폐사를 증가, 사료섭취율 감소 등 이상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.(1588-9060, 1588-4060)



2 농장에서 질병으로 의심되는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임의로 농장내에서 부검 등을 하지 말고,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.



3 돼지가 자연 폐사된 경우(압사 등) 퇴비사에 방치하지 말고, 사체보관시설에 보관, 매몰, 랜더링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.



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 1588-9060, 1588-4060



농림축산식품부